

珪長岩製의 公州石壯里의 硯器 中에서 實見한 바 있으며 石材의 性質上 打製石器 特히 Flake tool에 適當한 것이다. 그러나 淳昌의 이 打製石斧의 時代는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時代는 여기서 採集된 前記 磨製單刃石斧의 그것 卽 石器時代도 末期인 金屬使用期에 屬하는 것이라 고 하겠다. 이것은 비슷한 剝離法(Leaving)이 大邱地區의 頁岩製有溝石斧에서도 보이고 있는 點에서 더욱 그러하며 그러한 剝離法이 磨製石器에 있어서도 第一次 整形에서 實施된 것을 말해 주고 있다.

別로 重要な 것이 못될지 모르나 將次의 더 많은 資料出現을 期待하는 마음에서 簡單히 紹介하여 두는 바이다.

### 百濟의 長劍과 馬具類의 新例

洪 思 俊

지난 六月에 連山面에 居住하는 金光世氏가 五月下旬 同面 表井里 시루峰後 北山城에서 三〇〇m地點의 長霖으로 挖겨진 地下古墳에서 收獲하였다는 百濟時代의 武具 및 馬具 等屬을(扶餘博物館所藏) 持參하였다. 지금까지 未發見된 比較的 原形을 알아 볼 수 있는 遺物들이므로 紹介하여둔다. 그 種類는 아래와 같다.

- 1, 馬鐸 一雙 青銅製 完全
- 2, 馬轡(말자갈) 一括 鐵製
- 3, 鐙子 一雙 鐵製
- 4, 鐵鏃 一括
- 5, 鎗 二柄 鐵製
- 6, 長劍 二 門銷附一
- 7, 坩 一
- 8, 단지 一 蓋付 蓋一

以上에서 特히 長劍과 馬鐸에 對해서 一言을 加하고자 한다.

### 長劍 (1)

圖面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날이 칼집에 넣어 있는데 劍柄上·下端을 銀마구리하였고 손(手)에 잡는 部分은 木心에 銀帶를 감았고 이 銀帶에 는 橫으로 凹凸線이 있어서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. 그리고 칼집 末端에도 亦是 銀마구리를 하여 칼집은 칼날과 附着하여 腐敗하여 서 그 原形을 識別할 수 없다.

### 馬鐸 一雙

青銅製 馬鐸의 形態는 늑이 곱게 쓸어 있으나 原形을 完全히 保存되어 있다. 鐸內에는 鐵丸球가 들어 있어서 지금도 그 馬鐸소리를 들을 수 있다.

馬鐸外表에는 中央橫凸帶를 上下로 區分하여서 上部에는 簡略한 蓮花紋(陽刻)이 左右側에 各三瓣씩 裝飾되고 下部에는 鬼面이 亦是 左右側에 陽刻하였으되 口形을 馬鐸唇으로 代用하여져 있다. 勿論 馬頭に 달을 수 있도록 小孔이 馬鐸上部에 別途로 있다. 이 馬鐸은 壓延하여 만들지 않고 左右陽刻文을 合縫시킨 듯 하다. 縱長 七cm 橫長 七cm

### 天安 三臺里 寺址의 磨崖佛立佛

李 殷 昌

天安郡 豐歲面 三臺里 寺址의 磨崖佛立像을 調査한 바 있어 이에 紹介한다.

### 1, 寺址

豐歲面 所在地(豐歲縣 古基<sup>①</sup>) 西便으로 泰鶴山이 있어 그 山中腹에 傳稱 海仙庵<sup>②</sup>이라 하는 廢寺址가 있다. 이 寺址에는 法堂址로 推定되는 築臺와 高麗朝 所作으로 推定되는 石塔屋蓋石片이 殘在하고 一帶에는 瓦片이 散落되어 있다. 그리고 寺址에서 約百m쯤 東北地點인